

관 장 이 만 갑

圖書館이라고 하면 서울大學校의 敎職員과 學生들은 과연 무엇을 연상할까? 모르긴 하지만 연상하는 내용은 극히 否定的인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만큼 서울大學校의 附屬圖書館은 藏書와 施設 그리고 서비스가 아주 신통치 않았다.

그러나 서울大學校 綜合化 10個年計劃에 따라 圖書館은 이제 數年內에 캠퍼스의 中心에 위치하는 가장 큰 建物이 될 것이고 그 機能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증대할 것이다. 그에 대비해서 우리 圖書館은 移動計劃, 分館의 綜合과 새로운 管理體制의 確立, 妥當한 收書原則의 樹立과 藏書의 發展計劃, 有能한 司書職人員의 確保와 訓練等 여러가지 긴급한 課題에 당면하고 있다. 이 課題들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하는 것이 圖書館建設의 成패를 가늠하는 것이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서울大學校의 發展與否를 크게 좌우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學校當局에서는 圖書館건설에 가장 큰 比重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時點에서 圖書館業務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우리들의 책임은 말할 수 없이 크고 또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刊行하는 圖書館報도 圖書館이 구색을 갖추기 위한 하나의 裝飾的道具로 존재할 것이 아니라 圖書館을 운영하는 者와 圖書館을 이용하는 者 사이를 이어주는 중요한 情報의 미디어로서 충실한 내용을 담아야 하겠다고 절실히 느껴지는 것이다. 아직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여 舊穀을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지만 다음에 보다 훌륭한 형태로 발전시킬 것을 스스로 기약하고 圖書館報 第九卷 第一號를 내는 바이다.